

## 건전한 가족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

정 영 금(가톨릭대학교 교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생활과학 중심의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이나 상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문화사업 역시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관련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에서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매우 의미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과 연관지어 보면, 2007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업영역에 비해 가족문화사업의 목표나 사업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족문화사업은 그 목적을 정확히 제시하고, 사업유형과 내용을 각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하며, 사업평가지 체험, 캠프, 관람 및 전시, 축제 등 다양한 영역을 분류하여 다르게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반성에 따라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영역에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가족문화사업 가운데 가족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가족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를 수식하는 ‘건강성’과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보다 연관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 내용을 제안하였다면 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라고 한다면, 기본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야 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의 사업내용 혹은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가문화와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념부터 정책까지 다루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여가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혹은, 그것이 새로 제안되는 것이라면, 전체 여가정책 중 가족여가의 위치나 비중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족여가문화의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의 기본방향이 국민 누구나(대중성) 저렴하게(경제성) 창의적이고 생산적(창의성 및 생산성)인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의 기본방향도 이와 연계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가족여가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때 그 연계성도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여가의 특성은 언급되었다고 하지만, 어떠한 가족여가활동이 건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예를들어 가족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여가활동이 건전하다는 것

인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구분지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후자의 의미가 매우 강하다고 할때, 가족여가가 건전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구분지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가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젠더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가족여가와 관련된 의견불일치나 가족여가를 통한 만족/불만족은 남녀차이보다는 세대간의 차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여가를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가족원이 함께 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원 전체가 함께 하거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일부 가족원만이 참여하거나 다른 가족행사에 가족여가를 겹쳐서 즐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여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목적만 달성된다면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게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그림 5]에서 제시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내용에서 제도적 환경지원과 여가 환경지원에 대해 본문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문 중에는 가족여가의 특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예방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둔 건강가정 사업이 좀 더 확장되기를 바라며, 특히 가족문화사업의 정체성 확립에 가족여가문화 정착 사업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